경칩(驚蟄), 춘분(春分), 입하(立夏)를 재해대책의 "바로미터"로 삼자

김 진 영
한국방재협회 회장

경칩(양력 3월 5일)이란...

24절기 중 세번째 절기로 겨우내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 마른나무에 싹이 돋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생명이 약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겨울철 대륙성 고기압약화, 이동성고기압,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해서 한난이 반복된다. 그렇게 기온이 조금씩 오르며 봄이 오게 되는 것을 뜻한다.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에 빠졌던 개구리가 깨어나 꿈틀거리며 땅밖으로 나오고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춘분(양력 3월 20일)이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더위와 추위가 같아진다는 절기다.

24절기중 네번째로 봄내음을 맡고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 다음에 오는 절기다.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기 때문에 음과 양이 서로 반반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겨울 추위와 봄의 더위가 역시 같아진다고도 한다. 이제 곧바로 여름을 알리는 입하(양력으로 5월 5일)로 접어든다고 예고하는 것과 같다.

옛 선조들은 춘분의 날씨로 그해 농사의 풍년 혹은 흉년을 점치기도 했다고 한다.

〈증보산림경제〉에는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다고 하고, 이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해가 뜰 때 정동쪽에 푸른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 라고 적혀있다.

올해에는 3월 20일이 일요일 이었고 아침부터 날씨가 좋아 축구동호인들의 경기장을 찾았다. 내친김에 동호인들과 함께 어울려 하늘을 쳐다보며 부페식으로 준비된 점심도 먹었다. 춘분날씨와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과는 상반된 날씨였다.

괜스리 금년 재난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조금 있으면 입하를 시작으로 재해대책기간을 알리는 방재의 날(양력 5월 25일)이 다가온다.

입하(양력 5월 5일)란...

24절기 중 일곱번째 절기를 말한다.

태양의 황경이 45도에 이르렀을 때를 이르며,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로 알려져있다.

이때가 되면 봄은 완연히 퇴색된다. 산과 들에는 신록이 일기 시작하며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지렁이들도 꿈틀거리며, 밭에는 참외 꽃이 피기 시작하고, 묘판에는 볍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의 보리이삭들이 패기 시작한다고 한다. 논밭에는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서 풀뽑기에 부산해진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와 진짜 여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광주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사고(2015.2.5)가 생각난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옹벽 높이가 15m에 달했는데도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점검 대상인 재난안전 취약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이 옹벽은 인근 제석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축대·옹벽·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이 큰 시설들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별로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고 특별 관리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경칩을 시작으로 춘분까지는 얼었던 지반이 녹고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의 지지력이 약해진다.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집중관리를 벌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사고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붕괴우려가 있는 옹벽과 석축 등 급경사지에 대해서 무인항공기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정지역에는 이동형 기상관측

장비 등이 탑재된 특수차량도 동원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급경사지로 지정된 14,000여곳 중에서 안전등급이 낮거나 지역주민이 위험하다고 제기한 28곳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점검만으로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찰활동 실시를 일상화하여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서 처방까지 해야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인 남구 봉선대화아파트, 남구 월산·백은지구, 광산구 도촌지구 등과 급경사지 서동지구 등에 6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재난예방차원에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하가 지나면 곧바로 여름이라고 하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의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한다.

입하까지 얼마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나마 우리 재난안전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더욱 긴장된 나날을 보내면서, 예상치 않은 재난까지 다 잡아내어야 한다.

사고는 예고가 없다.

사고가 난 후에 호떡집에 불난 듯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거에는 여름철재해대책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정했다. 2004년부터 한달을 앞당겨 5월 15일부터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칩을 시작으로 춘분을 지나 입하까지는 60여일이 소요된다. 농부들도 경칩에는 농기구를 정비하여 벼를 심는 춘분에 대비하고 입하까지 지속적으로 물대기 등 농사 관리에 들어간다.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이를 자연재해에 접목시켜보자. 경칩부터 춘분까지 축대붕괴 등 해빙기 재난에 대비하고, 춘분부터 입하까지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기간으로 정하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입하부터는 비상근무에 돌입해야 된다고 보는게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가 제언해 본다.